2025년 6월30일 월요일 전남일보

남구 "모든 성과는 주민들과 함께 이룬 결과"

공약 이행 평가 7년 연속 최우수
"전국서도 보기드문 성과" 자평
민선7기 첫해부터 매년 기록 달성

광주광역시 남구가 29일 민선 8기 3주년과관련,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한 전국 기초자치단체 공약이행 평가 '7년 연속, 전국 최우수(SA) 등급' 달성을 가장 큰 성과로 지목했다.

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에서도 보기 드문 성과로, 남구의 구정 신뢰도를 입증하는 의미 있는 결과이자 주민과 함께 걸어온 시간의 결실로 평가되고 있다.

남구는 민선 7기 첫해부터 단 한 차례도 빠짐없이 최우수 등급을 획득해 왔으며, 민선 8기 들어서는 더욱 현장 중심의 정책과 소통을 바탕으로 주민과의 신뢰 구축에 주력해 왔다.

특히 정부 주관 도시재생사업 전 분야에서 전국 유일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30년 만에 철거된 백운고가 자리에 조성된 푸른길브릿지는 단절된 도심을 연결하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여기에 더해 대형 디지털 사이니지 미디어월과 스트리트 푸드존 운영을 통해 하루 유동인구를 3배 이상 증가시키며 지역 상권 회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미래산업 기반 조성도 눈에 띈다.

신성장 산업을 견인할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및 도시첨단 산업단지에 44개 기업이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가운데 21개 기업이 이미 입주를 마쳤다.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생활 인프라도 빠르게 확충되고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반다비체육센터, 남구 1호 진월복합운동장, 승촌파크 골프장, 그리고 연말 준공예정인 국민체육센터까지, 생활체육 도시가 있다.

아울러 가족 힐링 공간인 월산 근린공원 글램핑장은 개장을 앞두고 있으며, 빛고을 농촌테마공원과 덕남마을 야영장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그 동안의 모든 성과는 주민과 함께 이룬 결과다"며 "앞으로도 더 낮은 자세로 현장에서 답을 찾고, 주민만을 바라보는 구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정준 기자 jeongjune.lee@jnilbo.com

광산구-제주시, 지역발전 협약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제주시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문화 교류 확대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7일 제주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병규 광산구청장, 김완근 제주시장, 광산구 수완동과 제주시 연동의 주민대표가 함께했다.

협약은 두 지역의 공동 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의 의미로 추진됐다.

그동안 광산구와 제주시 사이에선 시민 주도로 일곱 차례의 고향사랑 교차 기부로, 총 5000여만 원의 기부금이 상호 전달됐다.

지난해 제주시 연동 주민들은 광산구를 직접 방문해 상견례와 기부를 진행하며 지역 간 우의를 다졌고, 최근에도 상호 기부를 하는 등 상생 교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협약에 따라 광산구와 제주시는 지역 특산물, 문화, 관광자원 등 상호 홍보와 판로 확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에 협력한다.

두 지역 공동체 교류 지원,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공유, 상생 발전 사업 등도 추진한다.

이날 협약식을 함께 한 광산구 수완동, 제주시 연동의 각 주민대표, 통장단은 2번째 고향사랑 교차 기부 기탁식을 가졌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이번 협약은 지방정부 간 협력을 통한 자발적 시민 참여 확대, 고향사랑기부제의 선순환 구조 정착, 주민주도형 지역 상생 모델 확산이라는 점에서 전국 지자체에 중요한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제주시와의 상생 협약은 사람, 마을, 경제, 다시 사람으로 선순환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미래를 제시할 뿐 아니라 연대하고 참여하는 시민이 주도하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기점이 될 것"이라며 "협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두 도시의 연대가 지방자치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철 기자**

광주 서구 주민들이 28일 서구 상무시민공원 피크닉존에서 열린 이동형 물품공유 서비스 '천원들고 피크닉' 행사에서 돗자리, 에어베개, 피크닉 바구니 등 천원 피크닉 세트를 이용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광주 서구 제공**

서구, 도심서 즐기는 '천원피크닉' 성료

놉방·인스타·아이조아 피크닉 등

광주광역시 서구가 지난 28일 상무시민공원 피크닉 존에서 운영한 찾아가는 물품공유센터 '천원피크닉'이 성료됐다고 29일 밝혔다.

'천원피크닉'은 천원국시, 천원택시, 천원아이돌봄 등과 함께 추진 중인 서구형 생활밀착 복지정책 '천원의 동행'의 일환으로 공공자원을 활용한 공유문화 정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서구는 △놉방 피크닉(휴식형) △인스타 피크닉(감성형) △아이조아 피크닉(가족형) 등 3가지 테마로 구성된 천원피크닉 세트를 갖추고 선착순 현장 대여 방식으로 저렴하게 제공하는 한편, 팝콘 만들기와 폴라로이드 사진 촬영 등 다양한 SNS 인증 프로그램과 함께 보훈의 달을 기념해 태극기 우산 만들기 체험도 진행했다.

'천원피크닉'을 즐긴 한 가족은 "아이들과 도심 속 공원에서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았다"며 "저렴한 비용으로 피크닉 용품을 빌릴 수 있고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어 정말 유익한 하루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구는 이번 행사를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천원 워터락(여름) △천원 스노우 펀(겨울) 등 계절별 테마 시리즈로 확대·운영하고 생활 속 공유 문화 확산을 위해 운영 중인 물품공유센터에도 천원피크닉 세트를 비치할 계획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천원피크닉은 저렴한 비용으로 도심 한복판에서 주민이 함께 나누는 공유문화의 좋은 예"라며 "앞으로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공유 정책을 통해 편리하고 실용적인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승우 기자**

북구,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최우수기관' 선정

사업 연계 성과 인정 받아
맞춤형 돌봄 서비스 환경 조성

광주광역시 북구가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성과평가에서 호남권 유일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성과평가는 보건복지부의 주최로 한의약을 지역의 돌봄사업에 활용해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한 지자체를 선정 및 표창해 우수사례를 전국에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성과평가에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작년 추진된 전국 지자체별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을 △사업계획의 적정성 △서비스 제공 수준 △서비스 계 실적 △전국 확산 가능성 등의 기준으로 종합 평가했다.

북구는 지난해 '당신이 건강한 돌봄 북구'라는 주제로 노인·장애인·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1만3890명에게 침, 뜸, 부항, 한약 처방 등 한방진료와 인지검사, 정신건강 상담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1인 가구 대상 찾아가는 건강 교실, 영구임대주택과 도농통합지역을 아우르는 맞춤형 거점 이동진료소 운영 등 취약계층이 어디에서든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북구 한의사회, LH광주전남지역본부, 국민건강보험공등 등 지역 내 다양한 유관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연계한 것이 호평받은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것은 빈틈없는 돌봄 사업을 펼치기 위한 공직자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맞춤형 돌봄 사업을 추진하여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승우 기자**

'숲에서 찾는 건강회복' 프로그램
광산구, 숲 테라피로 맞춤 돌봄
재가의료급여사업 대상자 대상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재가의료급여사업 대상자들과 함께 최근 근촉국립장성숲체원에서 '숲에서 찾는 건강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6일 시행된 재가의료급여사업은 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장기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사업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재가의료급여사업 대상자에게 숲 치유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신체적 활동을 높여 삶의 질 회복을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숲 테라피 △편백봉 체조 △편백숲 아로마테라피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진행됐다.

광산구와 호남대학교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호남대 간호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라온서포터즈'가 참여해 대상자들에게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숲에서의 활동이 재가의료급여대상자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수급자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과 삶의 질 향상을 높일 수 있도록 맞춤형 의료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김상철 기자**

'마을희망 은퇴 교실' 4회기 성료
동구, 중장년 대상 프로그램
건강관리·사회참여활동 모색 등

광주광역시 동구가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운영한 '마을희망 은퇴 교실' 4회기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이번 '마을희망 은퇴교실'은 동구와 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리 광주센터의 업무협약에 따라 마련됐으며,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은퇴후 삶을 고민하는 베이비붐 세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생애 경력 설계 이해하기'와 '행복한 삶을 위한 가치 찾기' 등 두 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구체적으로 효과적인 재무관리 전략,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위한 건강관리법,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사회참여 활동 모색, 개인의 가치관을 반영한 행복한 삶의 의미 찾기 등에 대한 수준 높은 강연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160여명의 참여자들은 은퇴 후 삶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통해 앞으로의 인생 2막을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마을희망 은퇴 교실이 주민들의 행복한 노년 설계를 위한 밑거름이 됐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유철 기자**

全南日報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